

#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2011. September 9

부산역 문화광장에서 10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5~8시  
수공예품 프리마켓이 운영된다

오감즐감공연·분수쇼·레이저쇼와 함께 프리마켓을 여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충을 통해 부산역광장이 원도심 예술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FEEL LIKE THE ONLY  
TWO PEOPLE ON EARTH



It's your honeymoon. Escape from the rest of the world. Here in Malaysia, you can get away from everything and everybody. Be it a beach hideaway in Langkawi or a rainforest retreat in Taman Negara, it's sure to leave you and your loved one feeling like the only two people on this planet. If you're searching for the perfect way to start your happily ever after, the time is now, the place is Malaysia.

*Malaysia*  
Truly Asia

Map is not to scale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 사무소 :  
100-813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7-2 한산빌딩 2층 www.mtpb.co.kr

TOURISM  
MALAYSIA



**Safety**

부산은 안전합니다!  
나가사키도 안전합니다!  
규슈도 안전합니다!  
오사카도 안전합니다!  
동경도 안전합니다!



長崎ペンギン水族館  
NAGASAKI PENGUIN AQUARIUM

나가사키펭귄수족관  
<http://penguin-aqua.jp/korean/>

나가사키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051-463-3111 FAX:051-463-0004  
E-mail:siddoll@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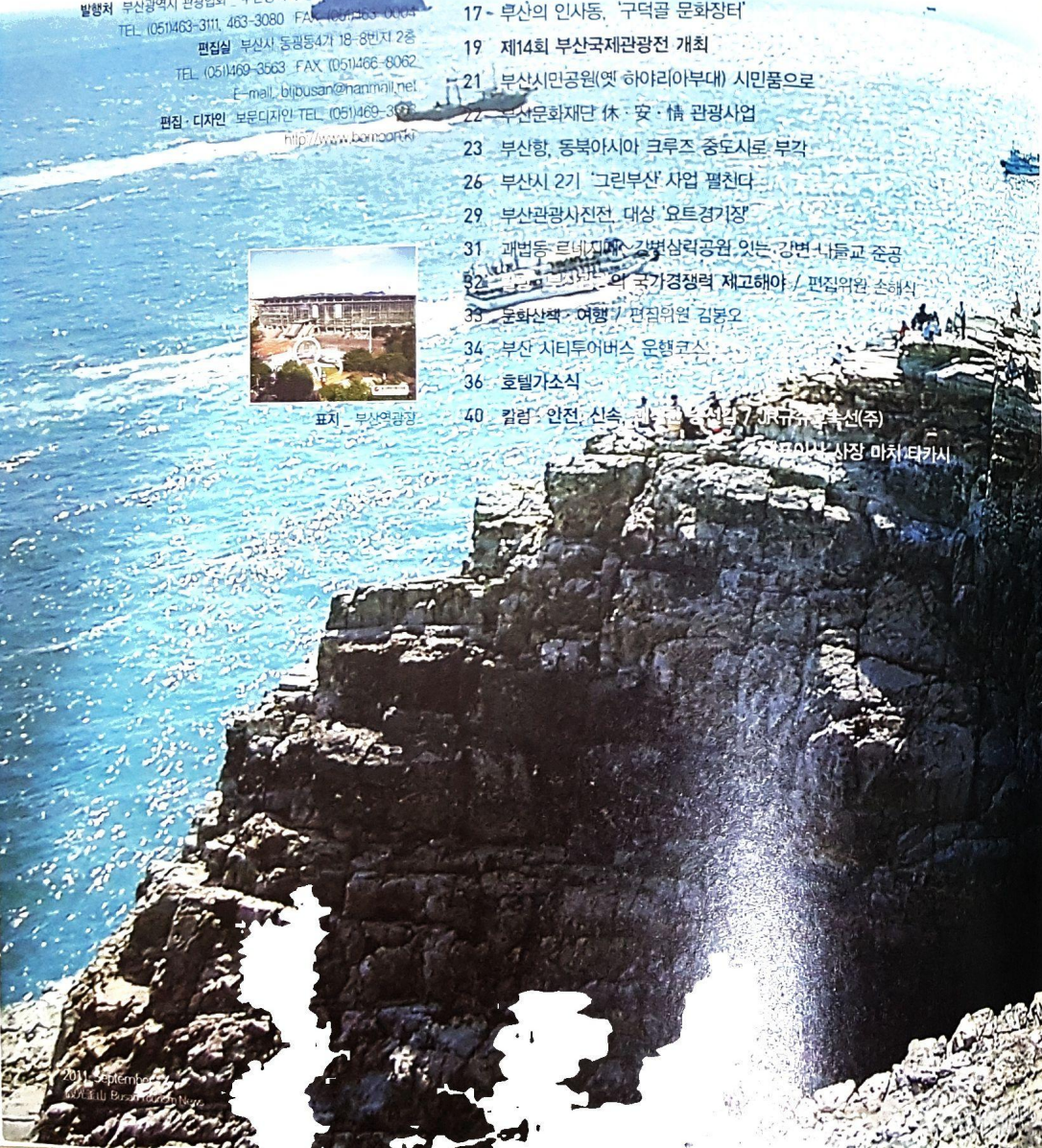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이근후  
 편집위원 손해식, 이명규, 김종규, 이해원, 김영우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1년 8월 30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등록 01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 부산광역시 동구 동광동 69-9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동광동4가 18-3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il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097  
 http://www.bosantou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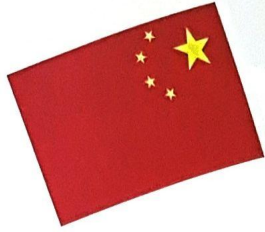
표지 부산영광길

- 06 부산시, 중국인 관광객유치 실무대책단회의 개최
- 08 부산,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우뚝'
- 11 9천톤급 무동력 '웨일크루즈' 광안리앞바다에 띄운다
- 13 부산북항재개발지역에 '동방의등불' 상징 랜드마크형 대형등대 설치
- 15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지난해보다 11% 증가
- 16 부산 찾은 외국인관광객 일본 감소, 홍콩·대만 증가
- 17 부산의 인사동, '구덕골 문화장터'
- 19 제14회 부산국제관광전 개최
- 21 부산시민공원(옛 하아리아부대) 시민품으로
- 22 부산문화재단 休·安·情 관광사업
- 23 부산항, 동북아시아 크루즈 중도시로 부각
- 26 부산시 2기 '그린부산' 사업 펼친다
- 29 부산관광사진전 대상 '요트경기장'
- 31 과법동 르네상스~강변삼락공원 잇는 '강변나들고 준공'
- 32 '부산의그린바다'의 국가경쟁력 제고해야 / 편집위원 손해식
- 33 문화산책·여행 / 편집위원 김봉오
- 34 부산 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 36 호텔가소식
- 40 컬럼: 안전, 신속, 편리한 관광 / 김규주(한국관광공사 부산지사장 마차타키시)





# 부산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실무대책단 회의개최



부산시는 2012년도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유치목표를 위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실무대책단 회의를 지난달 4일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강희천 관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관광안내시스템에서 음식, 쇼핑, 숙박, 관광프로그램, 마케팅 등 분야별 실행계획을 유관기관 및 부서별 상호 연계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대응
-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09~12), 한국방문의해(10~12), 여수세계엑스포(12)를 적극 연계, 효과적인 마케팅 추진
- 동해안권, 동남권 광역 관광협의체를 활용한 광역 관광프로그램(상품화) 개발
- 직항도시, 직항 인접도시, 신규시장 등 단계별 타깃시장 확대 - 대만, 홍콩, 대련 등
- 홈페이지, 중국현지 SNS 사이트 활용 등 온라인홍보 강화
- 중화권 개별자유여행(FTI) 관광프로그램(상품화) 개발 등을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 관광안내 전문인력 양성
  - 중국어 관광안내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음식점 육성 및 음식관광 활성화
  - 전통음식 체험장 조성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 부산대표 집빙음식 이용 활성화
- 쇼핑관광 확대
  - 중국 관광객 쇼핑 촉진
  - 중국 은행카드 이용 활성화
  - 2012 부산그랜드세일 개최 준비
- 숙박시설 확충 및 선진화
  -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및 지원 육성

## 7대 중점과제

- 주요관문 수용태세 개선
  - 관광안내소 신설 정비 등 기능보강
  - 관광안내표지판 중국어 서비스 확대
  - 중국어 스마트폰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 관광안내소 중국어 안내원 확충
  - 중국인 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
  - 국제크루즈터미널 편의시설 확충
  - 부산관광카드 이용 활성화
  - 서울-부산간 무료셔틀버스 운행
-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 공연, 문화체험 관광콘텐츠 발굴
  - 야경관광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 국제크루즈 관광역 유치활동 강화
  - 항내 크루즈 활성화
  - 차이나타운특구 관광활성화사업 추진
  - 의료관광 활성화
- 광역관광유치 등 연계 중화권 타깃 마케팅
  - 광역관광협의회, 유관기관 연계 중화권타깃 마케팅
  - 중국 온라인마케팅 추진



# 부산시, 관광협회 중국 연태(烟台)시, 관광협의회서 체결

부산광역시 관광협회와 중국 연태시가 지난달 30일 시내 코모도호텔에서 양측 여행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관광협력협의를 체결했다. 이날 부산관광협회 이근후회장, 중국 여음국 모운(牟雲) 부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한국 부산광역시 관광협회와 중국 연태시 여음국의 양지역 광발전과 상호협력안에 관한 협의〉

양지역간 관광업의 상호합작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상호협의결과 부산광역시관광협회와 연태시 여음국은 상호양해와 합작을 토대로 전략적관광합작우호관계를 맺고자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정부부서간의 업무합작을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상시 진행하며 중대행사를 통보하며 양도시 관광합작교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도시의 관광업의 전면발전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도록 한다.

나. 당지역의 중대행사에 서로 협력지원하며 적극 참여하도록

- 하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다. 양도시의 관광홍보를 중요시하여 서로의 자원과 조건을 이용하여 적극 협력하여 양도시민의 상호왕래를 증진시키며 정기적으로 관광업체와 언론기자들을 조직하여 방문교류를 진행한다.
- 라. 해당관광업체들이 상대도시에서의 활동을 지원해주며 양측의 상호방문과 관광답사를 적극 진행하여 서로의 경험전수와 양도시관광협력발전의 연합을 도모한다.
- 마. 관광업발전의 추세와 당지역의 주변환경에 의거하여 상호협력합작의 내용과 방식을 확정지으며 양도시의 관광합작발전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한다.
- 바. 양지역간의 골프, 트래킹, 마라톤, 수악여행 등 방면의 합작을 적극 추진하며 정기적으로 교류행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당협의회는 중국어와 한국어 두가지 언어로 작성되며 같은 효력을 지니며 공동사인 후에 유효하다.라고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 부산시, 주요관광지 20곳에 기념 스탬프 설치 지역대표 관광지 소개로 관광객들에게 추억 선사·기념품 증정

매력적인 부산의 관광지를 방문해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기념스탬프도 찍어보는 '퍼즐스탬프투어'가 7월부터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을 방문하고자 어디로 가야할지 망설이는 관광객들에게 지역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방문하는 장소마다 기념스탬프를 찍어보는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스탬프투어 대상지는 용두산공원, 부산근대역사관, 자갈치시장 및 국제시장, 범어사 등 전문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된 20곳을 선정해 해당지역에 대한 소개는 물론, 숨은 이야기거리를 듣는 등 내실있는 관광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퍼즐엽서 1,200부와 해당지역의 상징적 그림이 새겨진 스탬프(고무도장) 20개를 마련했다. 퍼즐엽서는 산뜻한 컬러의 4면으로 구성했다. 첫번째 면은 용두산공원타워, APEC 누리마루, 광안대교 등 부산의 랜드마크로 이루어진 부산 관광사진으로 꾸몄다. 두번째 면은 20곳으로 나눠 각 방문지별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세번째면에는 해설을 받고 느낀점 및 건의사항, 방문소감 등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면에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지역(20개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담았다. 특히, 퍼즐엽서는 1번에서 20번까지 모든 지역을 방문하고 스탬프를 찍으면 첫번째면과 같은 부산 관광사진이 완성되는 퍼즐형식으로 만들어져 즐거움을 더했다.

기념스탬프는 해당 장소의 입구 또는 안내소 등에서 찍을 수 있으며, 20곳의 퍼즐스탬프투어를 마친 관광객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소(부산역, 외국인서비스센터, 남포동종합관광안내소, 김해공항(국내선·국제선), 노포동 종합터미널, 국제여행터미널관광안내소)에 퍼즐엽서를 보여주면 또다른 부산을 만날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색있는 부산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스탬프를 찍어 한칸 한칸 퍼즐엽서를 채워가는 것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지 객원기자





# 벅스코, 국제행사 스케줄 내년까지 메머드급행사 잇달아 개최

벅스코가 부산을 국제회의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는 산파역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해 올린 경제과급효과는 4천000억원, 벅스코는 올 하반기에도 대형 국제행사를 잇따라 치러내며 전성기를 이어간다. 올해는 개관 10년을 맞아 '제2도약'을 선언했다.

벅스코는 지난달 15-18일 연 2011 부산국제철도·물류산업전에 이어, 8월, 2011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9월, 2011 IT엑스포, 10월, 2011 마린위크, 11월 국내최대 게임전시회 G스타 등을 치러낸다.

11월에는 세계한상대회와 제4차 OECD원조효과 고위급회의도 열린다.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40개 나라 한상 4천여명이 몰리는 그야말로 메머드급 행사다.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에는 선진국 주요 인사 2천명이 참석한다. 게임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사이버 게임즈 2011 그랜드파이널'은 12월 열린다. 성수기 비수기 나눌 것 없이 국제행사 스케줄로 꽉 차 있다. 월드사이버게임즈 참가 인원

은 1천여명 수준이지만 세계유명 프로그래머가 총출동하기 때문에 국내의 게임 마니아 수준 면이 몰려들 전망이다. 올해 열리는 주요 전시회마다 참가 규모가 확대돼 공간이 부족할 정도다. 마린위크는 세계 유명 조선·조선기자재업체가 총출동하는 데다 최근 조선업 상황이 살아나면서 참가 규모가 대폭 늘 것이라 기대다. 벅스코 전시장 1·2·3홀(2만 600㎡) 외에 야외부스까지 설치하기로 했지만 행사주최 측은 추가 면적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잡혀 있는 내년행사도 많다. 대표적인 것은 2012 국제라이온스클럽 세계대회, 200여개국 4만여명의 라이온스 회원이 참가하는 메머드급이다. 부산은 앞으로도 벅스코 시설 확충 등으로 컨벤션산업 인프라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하고 질 높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부산,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우뚝' 아시아 4위, 세계 7위, 제2 벅스코 내년 6월 개관

아시아 4위, 세계 17위, 부산이 세계적인 국제회의도시 반열에 우뚝 섰다. 부산을 앞서가던 중국 베이징, 태국 방콕, 인도 뉴델리, 일본 요코하마, 제주 같은 정평 난 컨벤션도시를 지난 1년 사이 모두 따돌렸다. 이들 도시 보다 훨씬 더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 국제협회연합(UA)으로부터 '세계적 국제회의도시'라는 타이틀을 공식 인정받았다.

아시아 상위 4위권 중 수도가 아닌 도시는 부산밖에 없다. UA는 세계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급성장한 국제회의의 도시는 '부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부산이 치러낸 UA 기준 국제회의의 건수는 09년 41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227%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 ITS 세계대회 같은 1천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국제행사는 서울보다 부산이 더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세계 수준의 MICE산업도시를 선언하고, 일찌감치 MICE산업을 부산 10대 전략산업으로 설정, 국제회의의 유치에 힘을

쏟아왔다.

2001년 벅스코 준공에 이어, 2004년 부산 관광컨벤션부류로 설립, MICE산업의 씨앗을 꾸준히 뿌려왔다. 지난해부터는 더 크고 많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해 벅스코 시설확충사업(제2 벅스코)에 들어갔다.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따 이름붙인 신조어.

부산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UA기준 93건이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올렸다. 유치성과 속에는 2천명 이상 대형국제회의 9건, 주요 정부간 회의 11건이 포함,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면에서도 목표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다. 지난 한해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부산을 찾은 국내의 인사는 4만7천830명, 이중 1만6천 60명이 외국인이다.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천482억원에 달한다.

이민지 객원기자

## 관광의 메카 해운대지역, 관광르네상스 조성 제2벅스코, 4천명 동시 수용할 오디토리움(대강당) 건립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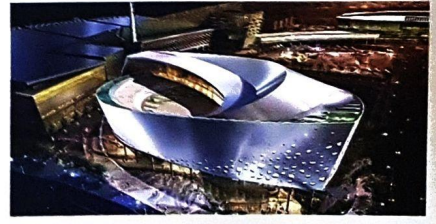
부산지역 특급호텔들이 가장 밀집한 전통적인 관광의 메카, 해운대지역이 관광 르네상스가 조성돼 가고 있다. 우선 옛 극동호텔 부지에 지어질 108층 초고층 해운대관광리조트 안에 특급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호텔 신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리츠칼튼 호텔, 메리어트 호텔 등도 간간히 이름이 들려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내년에는 마린시티 아이파크 부지 안에 6성급 고급호텔로 알려진 파크 하얏트까지 입성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들 호텔이 다 들어서면 해운대 중동 인근에 특급호텔만 6개가 밀집하게 돼 호텔 간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호텔이 이처럼 해운대 중동 일대에 몰려드는 것도 이유가 있다. 부산의 타지역 호텔과는 달리 해운대지역의 호텔들은 전시·컨벤션 수요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벅스코의 역량이 많이 기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벅스코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제2벅스코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벅스코 옆 옛 시네파크 부지에 건립중인 제2벅스코는 4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오디토리움(대강당)과 전체 면적 2만㎡ 규모의 전문 전시장, 승용차 2천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등으로 구

성되 있다.

제2벅스코가 건립되고 나면 벅스코는 서울의 코엑스와 비교할 때 전시 공간은 1만㎡, 컨벤션 공간은 1천㎡가 더 커지게 돼 국내 전시·컨벤션 산업의 중심으로 부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벅스코와 함께 부산 해운대지역의 또다른 핵심 요지인 수영만오트경기장도 동북아 최고의 현대식 복합 마리나시설로 재탄생한다. 23만 4천여㎡의 사업부지에 652척의 계류장과 호텔, 컨벤션, 전시·판매, 소리·보관, 요트학교, 출입국사무소, 요트클럽 등의 부대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수영만 오트경기장 복합 마리나시설 개발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돼 오는 2013년 마무리될 계획이다.

오디토리움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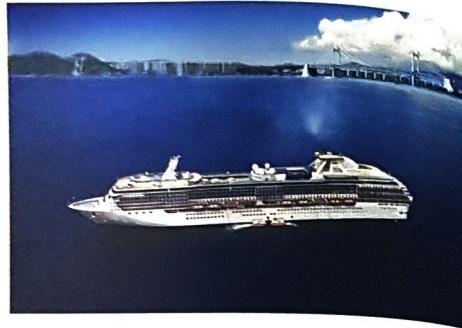


## 크루즈관광 '관광상륙허가제' 로 간소화 방안 검토 법무부, 무비자 보완책 검토

부산항에 내년부터 크루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인 탑승객의 무비자 입국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크루즈선을 타고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한해 관광상륙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선박책임자의 신청에 의해 관광객의 국내 상륙을 일시 허용하는 것으로, 실현되면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관광상륙허가제 도입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와 관광업계 등은 내년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이 대형화하고 중국인 중심의 탑승객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루즈선사 ROCL 부산대리점 유니해운의 손본수 사장은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 대형 크루즈선이 더 많이 부산항을 찾고 이에 더해 일본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와 호주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투어상품개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동북아시아 크루즈승객의 절반



을 웃도는 중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무비자 입국을 보완하는 형태의 일시 입국 허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해양항만청은 부두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복항에 들어서는 새 크루즈터미널을 2014년 국제여객터미널 완공 시점에 맞춰 건립하도록 정부에 조기 예산 집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설계 확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줄 것"

용호만매립지에 들어설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의 설계안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최근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조성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부산 '아키텍처 장 건축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자연친화적인 흙길로 산책로를 만들고 테라스와 주차공간을 녹지화 하는 한편 투명설계와 테크 등으로 열린 조망을 구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당선 설계작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연말에는 착공해 내년 10월에 터미널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59억원으로 남구 용호동 959일 원 7천 519㎡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600㎡ 규모의 유람선 전용 터미널을 짓는 사업이다. 유람선 터미널이 들어서면 3천톤급 이하의 연안 유람선의 기항지

부경대 실습선의 기항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이라는 또 하나의 해양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호만유람선 터미널 조감도

## 9천톤급 무동력 '웨일크루즈' 광안리 앞바다에 띄운다 관광호텔, 극장, 레스토랑, 선상공연, 컨벤션까지 갖춰

광안리해수욕장에 관광테마 사업으로 '웨일크루즈'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갔다. 수영구청은 지난 3월 구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주)부산크루즈아일랜드가 관광숙박(수상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신청해 와 3개월간의 검토 끝에 이를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웨일크루즈'는 고래형상을 본뜬 연면적 2만 9천 779㎡ 규모의 9천톤급 무동력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과 수변공원 앞 해상 600~700m 거리에 설치될 이 초대형 부선은 내부에 관광호텔과 수영장, 극장, 레스토랑, 선상공연장이다 컨벤션 시설까지 갖출 계획이어서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기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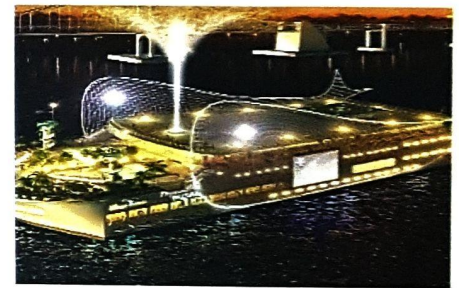
수영구에 따르면 웨일크루즈 건조는 오는 2013년 6월까지 선박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천 50억원 규모의 '웨일크루즈' 사업은 전액 민자 유치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설명회 당시, 계획에 따르면 '웨일크루즈'는 완공 이후 매주 해수욕장 인근으로 이동해 선상 공연장에서 무료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해수욕장 4계절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콘텐츠를 찾지 못해 고심하던 광안리 해수욕장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34개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까지 입점을 계획하고 있어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국내 첫 해상관광호텔이 좌초되고 인공섬 사업도 추진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할 만한 테마형 관광사업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따라서 수영구는 '웨일크루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지역 내 고용창출이 1천여 명에 달하고 주변 상권까지 포함해 연간 5천억 원의 신규 관광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치를 한껏 높여 잡고 있다.

웨일크루즈 조감도



## 부산 불꽃축제, 광안리 앞바다 특급호텔 예약 마감

올해로 7회째 맞는 부산불꽃축제가 축제기간 광안리 H·A 특급호텔 등 해변 주요 호텔의 객실 예약이 마감됐다. 축제 개시까지 아직 4개월 가까운 시간이 남았지만 객실 상품가격을 책정하지 못한 일부 호텔을 제외하고 축제 기간 객실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광안리해수욕장은 해운대에 비해 호텔수나 객실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매년 8월 중순이면 불꽃축제 관광객의 쇄도로 예약이 마감됐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하면 1개월 이상 이른 추세다. 올해부터 부산시가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꽃쇼를 10월 22일과 29일 두차례에 나눠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현재 예약된 객실 가운데 30%이상을 차지한다.







## 부산 남항일대, 국제수산물관광단지로 개발 본격화

자갈치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일대, 영도구 일부 남항을 부산의 새로운 수산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오는 2008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기초용역 결과에 따르면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와 용역 계약을 맺은 (주)동호와 (주)한기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간 사업계획과 타당성 조사,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관광, 경제, 도시계획, 수산유통 등 관련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 용역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부지는 당초 기초용역에서 빠졌던 제2롯데월드 부지까지 포함해 146만6천㎡(해역 8만 8천㎡포함), 현재 개발되고 있는 북항과의 연계 위해 영도대교까지였던 사업 대상 범위를 부산대교까지 넓혔다. 기본 구상은 중구와 서구, 영도구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기초용역에선 자갈치시장에는 공관장 체험장, 영화특화거리, 서구에는 씨푸르드스토크, 선상카페를, 영도구에는 유람선 계류지, 워낙시설 등을 둔다는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기초용역안이 본용역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남항 개발사업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북항과는 달리 대상 부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 추진이 한계가 있는

데다 영도 수리조선소, 부산공동어시장 이전 문제 등 선결과제도 많다. 또 중구와 서구, 영도구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전계획을 어떤식으로 아울러 통합 발전안을 도출할지도 숙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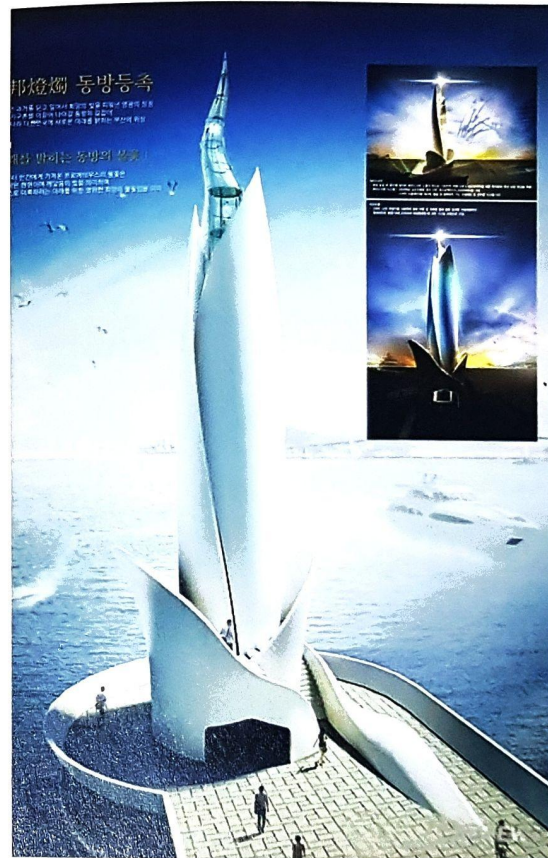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지분위원들은 "수산으로 특화된 남항의 특수성을 잘 살려 문화와 관광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항만공사(BPA) 권소현 투자유치실장은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시설 위주가 돼서는 안되고 남항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친수 기능으로의 방향설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지 객원기자



## 부산 북항재개발지에 '동방의 등불' 상징 랜드마크형 대형 등대 설치



부산항 개발이래 최대 프로젝트의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지역에 들어설 '동방의 등불'을 상징하는 랜드마크형 대형 등대 조감도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지역에 '동방의 등불'을 상징하는 랜드마크형 대형 등대가 들어선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북항재개발지역 해양문화지구 앞 외곽방파제 끝(옛 2부두자리)에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형 등대를 설치키로 하고 조형등대 설치를 위한 현상공모를 한 결과 (주)세한기획이 낸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어두웠던 과거를 딛고 일어서 희망의 빛을 피워낸 영광의 상징이자 글로벌지구촌을 이끌어 나아갈 동방의 길잡이 등대로 형상화해 동쪽의 나라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부산의 위상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부산해양청은 설명했다.

부산해양청은 예산 30억원을 확보, 당선작의 조형미는 물론 구조적 안정성을 철저히 검토해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북항재개발 일정에 맞춰 건립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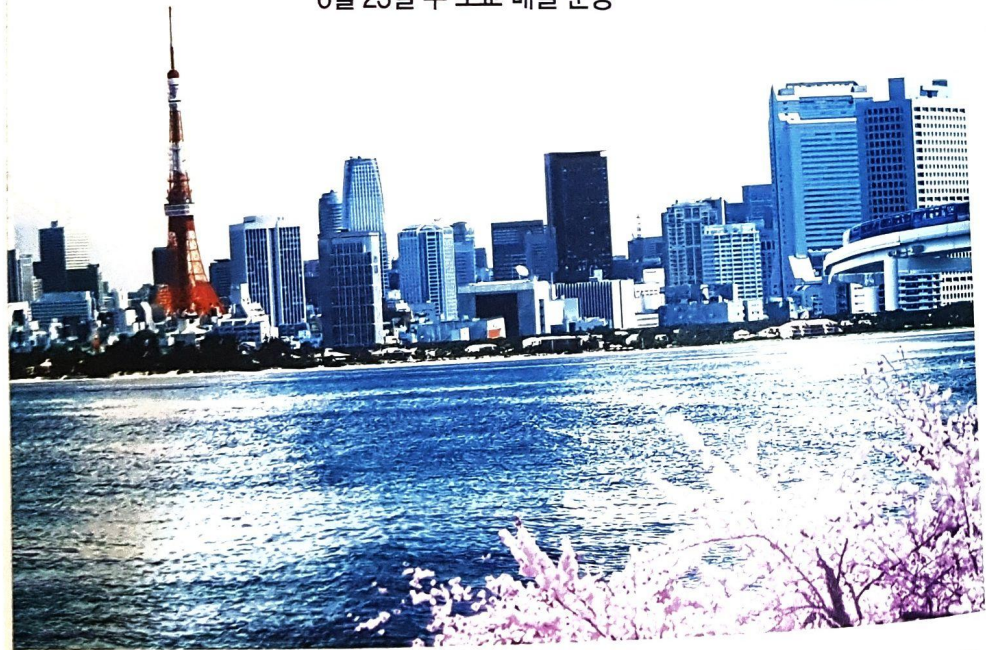
당선작은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으로 표현했다.



# AIR BUSAN

## 도쿄가기 힘들셨죠?

이제 도쿄도 에어부산이 답입니다  
6월 23일 부 도쿄 매일 운항



부산 → 도쿄  
[BX112] 매일 10:55 (출발) - 12:55 (도착)  
[BX111] 매일 13:55 (출발) - 16:15 (도착)  
도쿄 나리타

AIR BUSAN  
예약 문의: airbusan.com / 1668-3060

##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지난해보다 11% 증가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 진출 큰 몫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들의 잇단 국제선 진출로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편수와 이용객이 올해들어 폭발적으로 늘고있다. 최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국제선 운항편수는 주당 564편으로 지난해 6월 428편에 비해 무려 31.7%(136편)나 증가했다. 올해 5월 주당 502편에 비해서도 12.4%(62편)가 늘었다. 또 올해 1-5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편수와 이용객을 집계한 결과에서도 운항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 755편(20%), 이용객은 13만 5천 71명(11.3%)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월 1천 600~1천 900편이 운항됐으나 올해는 매달 월 2천편이 넘어섰다.

한국공항공사에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하계기간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편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주당 운항편수는 624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주당 438편 보다 크게 늘었다. 이같은 급증세

는 저비용항공사 위주의 국제선 노선확장이 잇달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의 경우 올들어 타이베이와 홍콩 등 4개 국제선 노선을 신규로 취항시켰다. 또 제주항공도 홍콩과 방콕노선을 취항했다. 특히 6월의 경우 에어부산의 부산-도쿄노선, 아시아나항공의 부산-호치민 노선 등 6개 노선 총 66편의 항공편이 신규로 취항했다. 세부퍼시픽항공은 지난 달 15일부터 주 4회 부산-마닐라 노선을 운항하고 있고, 해남항공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부산-북경 노선을 지난달 29일부터 주당 8편씩 운항하고 있다. 이같은 폭발적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김해공항은 곧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예산 8억원을 투입해 하반기 중으로 공항내 카운터를 8개 늘려 총 50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 선언 이후 김해공항의 신규노선 확대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에 당분간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천 부산시 국제공항기획단장은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는 김해공항의 수요 증가세를 간과한데 따른 잘못된 결정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 김해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 국내선 이용자 10명 중 4명 저가항공 이용 공격적인 편수 증설 등 영향, 지난해에 비해 5.7%P 늘어

올해 상반기 10명 중 4명은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저가항공사(LCC)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에어부산·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을 비롯한 저가항공사들의 국내선 수송 분담률이 4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4.6%)에 비해 5.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처음으로 수송률 40%대를 돌파했다. 올 상반기 저가항공 이용객 수

도 406만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342만명)보다 18% 가량 늘었다. 반면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등 대형 항공사는 올 상반기 국내선에서 593만 명을 실어 날라 분담률이 지난해 (65.4%)보다 조금 떨어진 59.7%를 기록했다. 항공사별로는 에어부산이 점유율 10.6%로 저가항공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제주항공(10.4%), 이스타항공(7.7%), 티웨이항공(5.8%)이 뒤를 이었다.

김대현 객원기자



## 부산 찾은 외국인관광객 일본 감소, 홍콩·대만 증가

올해 상반기 부산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감소했으나 홍콩과 대만 관광객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상반기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05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만명에 비해 2.8% 늘었다고 밝혔다.

일본인은 25만1천명이 찾아 지난해보다 9.4% 줄었으나 홍콩 관광객은 2만7천여명으로 73%나 증가했다.

대만에서도 1만9천여명이 부산을 찾아 지난해 상반기보다 17.1% 늘었으며 중국인 관광객도 1.2% 증가한 19만만5천여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발생한 대지진 사태의 여파로 4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급감했으나 5월부터 회복하기 시작해 6월에는 전월보다 6%나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홍콩과 대만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잇달아 생기면서 부산을 찾은 홍콩과 대만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올 상반기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던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주춤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여행업이 안정을 찾고 있고 중국 시장을 겨냥한 국제유람선 입항도 하반기 여러 차례 예정돼 있어 올해는 전년보다 5%가량 늘어난 235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이라며 "크루즈 상품과 시티투어 노선 개발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산의 인사동 '구덕골 문화장터' 주말마다 '고미술거리'로, 1999년 개설



서구 서대신동의 구덕아구장 담장을 따라 이어진 도로는 주말마다 부산 최대의 골동품 장터로 변한다. 고서적, 민속가구, 도자기, 옛 생활용품, 불상, 고미술 등 평소 볼 수 없었던 희귀 민속공예품 5천여점이 주말이면 이 일대를 명소로 만들고 있는 것

구덕골 문화장터는 부산고미술협회 회원들이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고미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1999년 시작, 지금은 '부산의 인사동'으로 외국인들에게까지 인기가 높다. 보통 하루 200~300명이 찾지만 여름철에는 찾는 이가 더욱 많아 1천명까지 몰린다. 구덕골 문화장터가 인기를 끄는 까닭은 한마디로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 듯한 재미 때문. 골동품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곳에서 신기한 물건을 보며 필요한 물건을 찾아 헤매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이곳에서 한국과 부산의 맛을 느끼는 외국인도 많다. 이곳에서는 골동품 외에도 60~70년대 히트한 유명가수의 LP판, 초·중학교 교과서, 진공관 라디오에 이르기까지 손때 묻은 근대물품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절판된 법정스님의 '무소유' 초판, 바보노무현책도 눈길을 끈다.

한 일본관광객은 "구덕골 장터는 일본에서도 관광명소로 이름이 높다"며 "장식용으로 화분과 도자기를 몇 점 샀는데 훨씬 저렴하고 오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덕골 문화장터는 부산고미술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 상인들은 전국을 돌면서 물품을 수집, 조상들의 손때가 묻은 물품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흥겨운 풍물놀이, 전통놀이 등도 연인 지역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경매도 이루어진다.

구덕아구장 담배터를 따라 3평 남짓한 전막들이 150여개 길게 늘어진 이곳은 도심속에서 세월의 흔적을 읽을 수 있는 흔치 않은 부산 시민의 소중한 만남의 장소이다.

## 중국 드라마 스타, 부산 홍보대사로

중국의 인기 배우 리우카이웨이(왼쪽)와 리우잉이 부산을 알리는 관광홍보대사로 활동한다(사진은 지난 22일 부산시청에서 가진 위촉식).

중국의 인기 배우들이 부산을 알리는 관광홍보대사로 나선다.

부산광역시청은 지난달 22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리우카이웨이(Liu kai wei)와 리우잉(Liu ying)을 부산 명예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리우카이웨이는 중국에서 다수의 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 출연하고 있는 스타. 지난해 중국의 '징슈 드라마 시상식'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잉얼(Ying er)이라는 예명으로도 잘 알려진 리우잉은 중국 연예계의 떠오르는 샛별. 지난해 중국 전역에 방영된 '서검은수록'의 항항공주 역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들은 중국 최대 호남방송국에서 오는 11월부터 방송하는 드라마 '천산모실'의 남녀 주인공으로 발탁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위촉식에는 두 배우를 비롯해 중국 드라마 제작자 탕핑, 이근후 부산시 관광협회장, 이성일 한국관광공사 영남권협력담당 등도 참석했다.

리우카이웨이와 리우잉은 이날 "부산 명예 관광홍보대사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중국인이 바다와 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부산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적극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리우카이웨이·리우잉 명예 관광홍보대사 위촉



# 중국 CCTV 부산특집 제작 부산 매력 9월말 중국전역에 방영된다

부산의 매력이 중국중앙방송(CCTV)을 타고 중국 전역에 방영된다.

부산의 명소와 바다축제 등 활기찬 모습이 CCTV간판 스포츠 오락 프로그램 '체육재선'을 통해 방송된다. 이를 위해 CCTV-4 제작팀이 지난달 30일 부산을 찾아 3일까지 '체육재선 부산 특집편'을 촬영했다. CCTV-4는 중국 전역은 물론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까지 방송을 내보내는 채널.

부산을 방문하는 제작진은 '체육재선' PD를 비롯, 중국의 대표적 한국인 방송인인 조수진씨와 그녀의 치어리더팀 등이다. 조씨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응원단 총감독을 맡았던 유명인물. 지금은 중국중앙방송의 간판 오디션 프로그램인 '치어리더 선발대회' 심사위원과 멘토를 맡고 있다. 중국 심야 오락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호남위성의 '여인천하'에서 중국의 대표 MC인 양관과 공동 진행도 맡고 있다.

'체육재선' 제작진은 먼저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를 방문, 의료관광 체험을 촬영했다. 이어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 온천천 시민공원·남포동 PIFF광장·해동 웅공사 등 부산의 명소와 관광지, 쇼핑센터 등을 화면에 담았다. 특히 지난 1일 부산바다축제 개막식에는 조수진씨를 포함한 6명의 치어리더팀가 부산의 대표 치어리더단과 함께 무대를 꾸며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들 치어리더들은 노래 '부산갈매기'와 '흔들여주세요' 등에 맞춰 멋진 치어리딩을 선보였다.

부산 특집편은 9월 말 CCTV-4를 통해 방영 예정이다. 방

송 전에도 수만명의 팔오위를 가진 조수진 씨의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Weibo.com)에 부산 촬영 현장, 여행정보, 뒷이야기 등을 실시간으로 올릴 계획. 방송 후에도 중국 주요 포털인 시나닷컴과 소후닷컴에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 3대 동영상 커뮤니티 '56.com'에도 CCTV-4 방영분을 재구성해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하철용 부산시 홍보담당관은 "최근 중국에는 경제력을 가진 젊은층인 '바람허우'가 늘어나면서 자유여행 타입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부산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중국중앙방송의 특집 방송이 부산의 매력을 중국인에게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영남알프스 하늘역새길' 조성사업 10월말 끝내기로..

'영남알프스 하늘역새길'이 10월에 활짝 열린다.

하늘역새길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과 경남 밀양시에 걸쳐 있는 해발 1천m가 넘는 5개의 명산으로 이뤄진 '영남 알프스'의 능선과 산봉우리를 따라 이어진 순환형 산악 탐방로다.

이 길은 상북면 간월재~신불산~재약산~천황산~능동산~간월재로 연결되는 길이가 모두 29.7km에 달하며, 신불산 평원의 역새밭과 4계절마다 바뀌는 간월산의 비경을 자랑한다.

울주군은 이곳에 국비와 시비, 군비 등 총 15억원을 투입해 험난한 코스에 데크를 설치하고 방향표지판, 안내판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공사를 이달 중순에 시작해 오는 10월 말에 끝마

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해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해발 1천m가 넘는 산 능선을 따라 걷는 하늘역새길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부산! 관광에 빠지다. 부산국제관광전

- 제14회 부산국제관광전... 9월 2일~5일까지 부산 BEXCO 개최

- 모두투어, 한진관광, 새부산관광 등 주요 여행사 참가

- 여행용품 및 아웃도어 상품 현장 할인구매 기회



국내 해양관광의 중심지인 부산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축제인 제14회 부산국제관광전(BITF2011)이 2011년 9월 2일(금)~5일(월)까지 4일간 벡스코 1홀에서 열린다.

부산광역시사가 주최하며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주)코트파가 공동주관하는 부산국제관광전은 8월 25일 현재 부산관광객이 100% 완료된 상태이며, 1995년 개최 이래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서울(인천) 다음으로 해외에서 국내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인지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여행상품특별할인관을 확대 실시하여 실질적인 BXC 여행상품적격재 장터가 될 전망이다. 모두투어네트웍스, 한진관광, 새부산관광 등의 대형여행사들이 참가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뿐 아니라 가을 및 겨울을 겨냥한 해외 및 국내 여행상품을 관광전 기간 중에 특별할인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모두투어의 경우 부산출발 패키지 및 골프상품에 한해 현장 예약시 동남아·중국 동남자 5만원 할인, 대양주 미주 유럽 동반자 1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행사별로 다

양한 할인상품을 소개예정이므로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관람객들은 저렴하게 여행상품을 예약 및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올해에는 여행용품 및 아웃도어 할인판매관도 함께 운영되어 박람회 현장에서 윈스톱으로 여행준비를 끝낼 수 있다. 할인관에서는 국내외 유명 여행용품 브랜드사의 여행용가방, 의류 등을 비롯하여 여행에 필요한 각종 악세서리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일반 2,000원, 학생 1,000원이며 단체는 3인 이상 50% 할인이다. 부산국제관광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무료초대권을 다운받아 지참하고 전시장을 방문하면 무료입장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국제관광전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 하면 된다.

부산국제관광전 사무국 051-740-4130~3  
(주)코트파 02-757-6161  
부산광역시관광협회 051-463-3111

이민지 객원기자



# 사장님, 알고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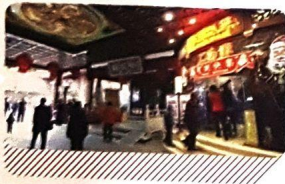
## 16억 중국인들은 은련(CUP)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

중국 관광객 은련카드 소비 캠페인 매출 255% ↑

2010.11.08 김지은 기자

위문화는 한국관광공사, 중국은련카드사, 비씨카드사와 공동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련카드를 이용해 35만명이상 결재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품이벤트 등 쇼핑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년 동기 매출액인 503억에 비해 255%증가한 1285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중국 국경절 특수기간(10월 1~7일)이던 10일은 영동 특구에 아치, 거리배너, 현수막, 전단지 배포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캠페인을 적극 알리 국내 은련카드 사용실적이 지난해 10월 5만 3000건 189억에 비해 230% 증가한 12만 건 4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은 318%, 신세계 270%, 현대백화점 81%등 유통업계 역시 중국 관광객 쇼핑 매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은련카드 가맹점, 이제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 주요 가맹점들이 은련카드를 수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가맹점의 중국 관광객 매출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 부산지역 주요 은련가맹점 현황

- 면세점 롯데면세점(서면점, 김해공항점), 파라다이스 면세점
-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 특급호텔 롯데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 쇼핑센터 영두산공원쇼핑센터, 광복로 일대, 남포동 지하상가

● 은련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국내 모든 비씨카드 가맹점은 '은련카드 가맹점'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련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정비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벤사 또는 판매리점에 전화 신청

신용카드 단말기 정비완료 사실 전화 통보

'은련카드 한국가맹점 관리센터' ☎ 1588-7418

은련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진행

- ① 은련카드 가맹점 특약서 체결
- ② 비씨카드의 은련 특약가맹점 전신등록
- ③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은련카드 테스트
- ④ 은련카드 스티커 부착

'한국가맹점 관리센터'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모든 사항을 관리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가맹점 가입 완료

● 은련카드 가맹점 신청 시 가맹점주소 및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 정보는 비공개, 카드사별 신청방법에 적용 됩니다.

# 부산시민공원(옛 하야리아부대) 시민품으로

## - 세계적 수준의 도심 공원으로 조성

부산 사람들의 삶의 품격을 한단계 더 높여줄 '부산시민공원'이 드디어 첫 삽을 뜬다. 부산진구 양정·연지·법전동 일원 옛 캠프 하야리아 미군부대 터 52만8278㎡(16만여평)에 들어설 이 공원은 산지가 많은 부산의 서면권 도심 평지에 자리한 것이 특징이다. 위치로도 부산의 한가운데쯤 된다.

기공식은 11일 오후 2시 공사 현장에서 김창식 국무총리와 허남식 부산시장,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 등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2005년 5월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 이후 6년 3개월여 만이다. 캠프 하야리아 기지 폐쇄(2006년 8월) 이후 꼭 5년이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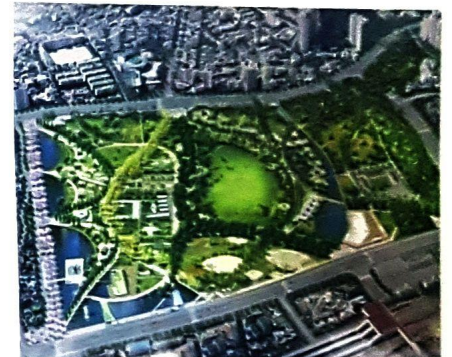
649억원(부지 매입·보상 4475억원, 공원조성 1135억원, 주변도로 개설 884억원)이 투입될 공원 조성 공사는 2014년 6월 마무리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 공원조성사업에 100년 만의 재회라는 별칭을 붙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육군훈련소·경마장, 해방 후 미군부대 등지로 쓰이면서 시민들에게 금단의 땅이었던 이곳이 10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 왔다는 의미를 담았다.

세계적 수준의 도심공원으로

세계 공원설계의 전설로 불리는 미국 제임스 코너(James Corner)가 공원 설계를 했다. 공원은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근·현대도시 부산의 100년에 아로새겨진 기

억, 그 100년이 빚어낸 문화, 시민들이 어우러져 현대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즐거움과 자연, 참여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시는 2007~2008년 직사각형 형태인 시민공원의 외곽지역 8만 3700㎡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누다운 개발을 추진중이다. 이 지역은 노후 주택들이 밀집한 곳, 세계적 수준의 공원을 싸고 도는 주변 지역을 깔끔하게 재정비하는 것이 부산시의 구사이다. 테라스 하우스, 60~65층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고 주변에 넓적하게 녹지와 개방공간을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일 역사적인 첫삽을 시작한 부산시민공원의 조감도. 사진 한 가운데 흰색을 모종의 공간이 '부산시민공원'이다. 그 주변을 둘러싼 동·서·남·북 사자는 동·서·남·북 4방을 상징한다.





## 부산문화재단 休·安·情 관광사업 부산의 재발견, 관광지 개발로 숨은 명소 제대로 알릴터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지역 문화예술을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2011 휴·안·정 관광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시, 경남도, 전남도 등 남해안 3개 시도 관광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새로운 명소를 발굴해 문화예술을 접목한 휴양형 관광프로그램으로 익숙하고 잘 알려진 부산이 아니라 이면에 숨어 있는 색다른 부산을 재발견하는 재미를 선사한다.

올해는 부산, 도심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원도심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사업이다. 탐방횟수는 20회로 원도심 코스 14회를 비롯해 지난해 사업을 잇기 위해 동부산 코스 6회도 함께 운영한다. 원도심 창작공간인 또따또가를 방문해 수공예 및 영화 감상, 인문학 좌담, 우리춤 배우기 등 체험시간을 갖는다. 참가비

는 당일 1만원, 1박 2일 2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휴양형 관광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부산문화재단 851-0600

## 광안리 카페거리 부산명물로 각광 9월부터 세계화 사업 실시할 예정

광안리 노천카페거리가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영구는 사계절 축제를 개최하는 등 카페거리 명소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의 레스토랑 야외 테라스에는 가족이나 연인끼리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즐기려는 손님들로 붐빈다. 최근 일년 새 광안리 해변에는 야외테라스를 갖춘 가게가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금은 'TOM N TOMS' 등 20여 개의 세계적인 커피브랜드 점포가 야외테라스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라이브카페 등 광안리를 대표하는 카페 명소 85개 점포가 유럽식 노천카페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영구는 광안리해변 카페거리를 부산의 매력에 담긴 세계적 관광명소로 추진중이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브랜드의 세계화 사업'에 카페 테마거리 조성을 포함한 '빛좋은 광안리해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공모했다. 광안리해변에 접한 300여 개 업체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계절 축제 개최 및 특화거리

조성을 골자로 하고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여름철에만 진행하는 소규모 문화공연을 카페거리와 연계한 사계절 특색있는 축제로 확대할 계획이며 업종별 대표자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세계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객원기자



## 부산항, 동북아시아 크루즈 모항으로 부각 부산 크루즈 입항 올 46회, 귀항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부산항이 '크루즈선과 비행기 연계 관광객'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등 동북아시아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떠오르고 있다. 4월 부산항을 모항으로 입항한 7만 1급 크루즈선 '레전드 오브 더 시즈(Legend of the Seas) 호'는 일부 홍콩 승객이 하선한 뒤 부산 주요 지역을 둘러보고 비행기편으로 본국에 돌아가는 크루즈 관광을 했다. 그동안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 승객들은 만나질 정도 부산을 관광한 뒤 해당 선박을 통해 귀국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항한 '레전드 오브 더 시즈 호'가 지난 4일 부산항에 입항한 뒤 승객 1800여 명(홍콩 승객 800여 명) 가운데 72명의 홍콩 승객을 승선시키지 않고 이날 오후 4시께 중국 텐진으로 떠났다. 부산에 남는 이들 홍콩 승객은 관광을 마치고 이날 밤 비행기 편으로 돌아갔다.

BPA는 크루즈터미널에 홍콩 관광객의 소화물을 보관해준 뒤 부산 관광을 마친 이들을 공항까지 태워줄 택시를 대기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BPA 관계자는 "이는 부산항이 크루즈선의 단순 기항지라는 이미지를 벗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유명 선사들이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크루즈 시장으로 여기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난해에 이어 8월부터 부산항 모항 입항하는 '레전드 오브 더 시즈 호'는 올 연말까지 3회 더 이 같은 형태의 부산항 입항이 예정돼 있다. 특히 내년부터 13만 1급 등 대형 크루즈선이 대거 부산항을 모항으로 정기 입항하고, 이들 선박 승객의 60%를 점유하는 중국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무비자 '상륙허가제'도 시행된다. 점에서 부산에도 유럽이나 미주의 크루즈 선진 항만처럼 '크루즈선과 비행기 연계 관광 시스템'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관광업계는 항만과 공항을 연계한 부산 관광지 개발에 나서 등 새로운 크루즈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부산항에 모항 입항한 7만1급인 크루즈선 '레전드 오브 더 시즈 호'

##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세계적 마리나시설 '가시화'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지역에 세계적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짓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세계적인 마리나 개발·운영기업인 싱가포르 SULT 그룹이북항재개발지역에 세계적인 수준의 마리나 시설을 지어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해 왔다"고 최근 밝혔다.

BPA와 SULT 그룹은 지난 4월 BPA가 마리나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SULT그룹이 마리나 시설 개발과 운영, 관리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해가서를 체결했다.

SULT 그룹은 육상 3만3천㎡, 해상 6만6천㎡에 요트 200척을 댈 수 있는 계류장과 숙박·편의시설, 컨벤션센터 요트수리소, 요트 아카데미 등을 짓겠다고 제안했다고 BPA는 설명했다.

SULT 그룹은 650억원을 들여 BOT(built Operate

transfer,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마리나 시설을 지어 운영하게 된다. 외자를 유치해 마리나 시설을 지어 운영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라고 BPA는 덧붙였다.

SULT 그룹은 세계 주요 요트대회 유치 능력을 갖춘 글로벌 마리나 개발·운영기업이며, 싱가포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11개국에 있는 마리나 시설 2곳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BPA는 선진 마리나 운영사를 유치한 만큼 국제 인증 요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해양스포츠 관련 세계 주요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시민들이 다양한 해양레저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마리나 시설이 부산항의 새로운 명소가 될것으로 BPA는 기대하고 있다.

BPA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 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마리나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여행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관광정보를 알차게 앱에 담아

한국관광공사가 10년간 모은 관광정보를 앱에 담았다. 여행지 주변 숙소정보는 물론 맛집, 기타 볼거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게다가 주요 관광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스마트폰으로 실속있고 편리한 여행을 위해 유용한 앱을 다운받아 떠나보자.



추천메뉴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전문가가 직접 취재한 여행 답사기를 볼 수 있다. 콘텐츠 맨 끝에는 교통편, 근처 숙박 정보, 맛집 정보, 해당 지역의 축제 정보, 주변 볼거리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어디로 갈까 메뉴는 가고 싶은 지역을 지도에서 직접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관광정보를 꼼꼼하게 알려준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가장 큰 장점은 여행지 주변정보를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처 숙소나 음식점, 다른 관광지 정보를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음식점 이름을 누르면 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 웹페이지가 열리고, 전화번호를 누르면 저장하지 않고도 화면 속 전화번호만 누르기만 하면 통화 가능하다. 여행지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 가고 싶은 여행지를 저장해 두는 보관함 기능도 갖췄다.

### ● 대한민국 문화행사 앱

여행 온 곳에 지역축제나 행사 등을 체험한다면 금상첨화이다. 대한민국 문화행사 앱은 우리나라 곳곳의 지역축제, 박람회, 체험행사 등 모든 행사를 알 수 있다. 내 주변 보기에서는 현재 내가 있는 장소 주변에 열리는 문화행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특히 시·군별 지도 검색을 통해 지역별로 열리는 소규모 문화행사까지 알 수 있다.

### ● 트래블로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 맛집을 찾아 헤매기 일쑤이다. 전국맛집 앱 '트래블로'는 가장 처음 출시된 것으로 전국 1만여 곳의 맛집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트래블로 앱은 차후 9월 초 오픈되는 트래블로 웹사이트와 연동이 가능해져 앱에서 직접 자신의 맛집 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된다.

### ● 케른 스토리

여행 중 기억하고 싶은 장소,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음성녹음 등을 정확한 GPS위치 정보와 연계해서 남길 수 있다. 또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여행 기록을 검색하고 검색된 여행 기록에 대한 통계정보를 확인,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들의 여행 기록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예약 기능을 제공한다. 등산하거나 여행할 때 해당 지역의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필요할 시 불러올 수 있다.

### ● 고속도로 교통정보(ROAD PLUS)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 CCTV와 속보로 전해주는 한국도로공사의 앱. 실시간 교통방송과 전국 고속도로 주요지역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정체 및 교통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도 제공한다. 자주 다니는 고속도로는 즐겨찾기에 추가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그 외에 도로공사 콜센터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메뉴와 사고정보를 할 수 있는 메뉴도 있다.

### ● 오피넷

주유소 가격정보 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의 유가정보를 알려주는 앱. 한국석유공사가 무료로 제공하며 지역별 주유소 가격정보 외에 셀프주유소, 불법업소, 고속도로 주유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 아이쿠폰

아이폰 이용자라면 쿠폰을 이용해 여행경비를 절감해 보자. 아이쿠폰은 전국의 맛집 쿠폰 400여 장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쿠폰은 원하는 지역 혹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내 주변 반경 1.5km 내에 위치한 쿠폰들을 검색 이용할 수 있다.

#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부산대표 관광기념품 23점 선정

부산 시어(市漁)인 고등어를 소재로 한 자개 액세서리가 제13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부산광역시 '제13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결과 211종 1천59점의 출품작 가운데 23점의 입상작을 발표했다.

영예의 대상은 김관중 씨의 '고등어를 응용한 자개 액세서리(사 진)'를 선정했다. 대상작은 해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물고기이자 부산 시어인 고등어를 열쇠고리와 넥타이 핀, 휴대폰 줄 등 다양한 작품으로 담아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일반상품 분야 금상은 서강후 씨의 '통일 옷', 창작아이디어 분야 금상은 김정남 씨의 '제래시장 이미지 관광상품'을 각각 선정하는 등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4명, 장려상 4명, 입선 10명 등 총 23명이 입상했다.

부산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국제 수준의 관광기념품 개발과 부

산관광 활성화·관광수의 증대를 위해 부산시 주최, 부산시 공예 협동조합 주관으로 1999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대상 1명에게는 300만원, 금상 2명에게는 각 2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부산대표로 참가한다.



# 유람선타고 누리마루 광안대교·이기대·오륙도·태종대 선상관광 부산 바다, 크고 작은 15척 유람선이 관광객을 유혹한다

부산 앞 바다를 운항하는 유람선들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선상파티는 물론 볼꽃놀이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피서객 맞이에 나섰다.

부산 앞 바다를 운항하는 유람선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상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사진은 국내 최초 테마여행 범선인 '누리마루' 호).

부산에는 △1박2일 크루즈를 운영하는 '팬스타드림'호 △식사를 하면서 유람하는 파티·컨벤션크루즈 '티파니 21'호 △국내 최초 테마여행 범선인 '누리마루'호 등 총 15척의 크고 작은 유람선이 바다관광객들을 태우고 있다.

이들 유람선들은 주로 해운대 해수욕장과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광안대교, 이기대,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의 명소를 두루 둘러보는 코스를 운항한다.

'누리마루'호는 지난 8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선상에서 '프라이데이 나이트 파티'를 열고 있다. 즉석 바비큐와 생맥주를 무제한 제공한다. 라이브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승객들을 즐겁게 한다. '팬스타드림'호는 지난 9일부터 여름휴가 승객을 위한 '썸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커피 참여자를 위한 깜짝 선물 이벤트와 객실을 파티장으로 꾸며주는 이벤트, 비보이·재즈공연 등을 선보인다.

■부산 앞바다 운항 주요 유람선

선명	출발지	여행일 이벤트	요금(원)	문의(전화·홈페이지)
팬스타 드림	국제크루즈마린	야생 선물 비보이재즈공연	10만7800 ~32만7800	1577-9996 fansstarline.co.kr
누리 마루	홍도만부두	오일 선상파티 상해의 추억	어른 12만5500 어린이 1만3천	463-7660 hvac-busan.com
티파니 21	해운대 동백섬	부산비대륙지 경관 볼꽃쇼 감상	4만 원	742-2500 tiffany21.com
동백	해운대 마포	-	어른 10만5500 어린이 1만2천	742-7106 tiffany21.com
태종대 유람선	태종대 자갈안방	-	어른 1만 어린이 5천	405-3889 tbsco.kr



(문의 : 1577-9996)



## 부산시, 2기 '그린부산' 사업 펼친다 내년부터 3년간 명품공원·도시림 확충 등



부산이 더 푸르게 변한다. '그린부산' 사업에 8천 300억원을 쏟아 붓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8천 270억 원을 들여 2기 그린부산 사업을 펼친다. 지난 2009년 7월 '그린부산'을 선언한 이래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1기 그린부산 사업'에 이은 대규모 푸른 도시가꾸기 사업이다.

부산시는 1기 그린부산 사업을 통해 12만 7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도시공원 2.3km를 새로 조성했다. 동서고가로도 등 고가도로 하부 3만 6천 65m에 나무를 심는 등 도심을 푸르게 가꿨다. 이에 힘입어 부산의 1인당 도시림 면적은 지난해 12.36㎡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펼칠 2기 그린부산 사업은 명품공원·녹지 조성,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녹지 관리체계 구축, 도심 입체 녹화, 공원·산림 경영체계 도입, 기능적 산림·녹지 조성, 범시민 그린부산 운동 등 7개 분야 총 35개 사업이다.

우선 명품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3천 700억 원을 들여 부산시민공원, 부산중앙광장(가칭), 낙동강 생태공원, 그린웨이 조성

등을 추진한다. 450억 원으로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태종대유원지 등 5대 공원도 제창조한다. 285억 원으로 해운대수목원 1단계 공사도 진행한다.

부산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과 녹지 확충을 위해 60억 원을 투자해 동대숲·쌍지공원 30곳을 만든다. 또 150억 원을 들여 어린이공원 30곳도 리모델링한다. 90억 원을 들여 45km에 달하는 거리를 중구 '베티세쿼이아 거리' 같은 가로수 특화거리로 꾸민다. 45억 원의 예산으로 학교 15곳을 공원으로 탈바꿈시킨다.

도심을 삭막하게 만드는 콘크리트 고가도로 아래와 옥상 등에 나무를 심어 푸르게 꾸미는 데도 57억 원을 들인다. 인도가 좁아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곳에는 20억 원을 들여 '그린 트랜시스'를 설치한다. 가로수 18만 그루에 대한 진신화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녹지관리를 위해서도 78억 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공단지역 '생명 의 숲' 조성(90억 원), 습지 복원(15억 원), 휴양림·'치유의 숲' 조성(30억 원) 등도 추진한다.

손해식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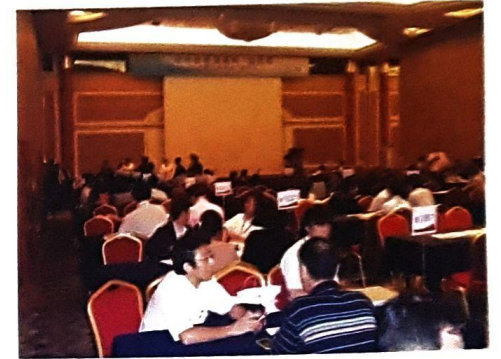
## 2011 부산 규슈(九州)관광 설명회 개최

규슈운수국 관광추진기구는 재팬지방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일 롯데호텔에서 부산 규슈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광설명회는 일본 규슈 관광추진기구 타카하시 마코토 부분부장, 요텐유키오 부산 총영사관, 후쿠오카 관광컨벤션부, 서일본철도 니시테스그룹 관광위원회 등 64명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는 모두투어 다투키, 용문여행사(아리투어) 등 65개 업체가 참가했다.

상담회에 앞서 관광설명회를 실시하여 릴렉스·헬스·뷰티의 규슈 관광브랜드를 제안하는 로하스 규슈와 한국에서 인기 있는 트랙킹을 한국여행사 등에 고급스러운 규슈여행에 대해 홍보했다.

2010년 규슈에 입국한 외국인수는 과거 최고 99.9만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3월 이후에는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규슈에 입국한 한국인수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슈는 물론이고 한국측 관광 관계자에도 큰 영향이 있어 이번 규슈관광설명회·상담회에서 "보다 매력적인 규슈여행상품을

조성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규슈운수국 및 규슈관광추진기구는 앞으로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규슈관광의 매력을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에 발신하여 규슈의 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다짐했다.



## 해운대구 관광특별시 추진

부산 해운대구가 '해운대 관광특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최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해운대 글로벌 창조도시 전략 세미나'에서 해운대 관광특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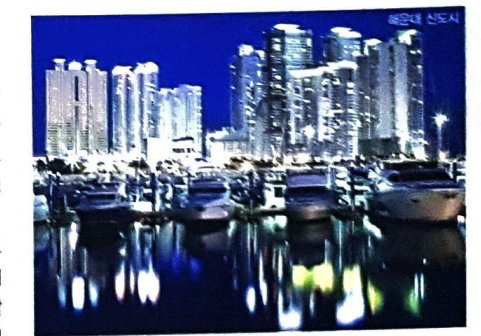
배덕광 구청장은 "21세기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해운대 특별자치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해운대가 국제 자유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히 인구나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도시의 특성을 살린 특별시를 만들어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차원에서 특별시가 꼭 필요하다"면서 해운대 관광특별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인 해운대의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시설에 인근지역의 관광단지화 특화단지 등이 더해지면 동부산권 성장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주민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근 지역

과 해운대를 통합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배 구청장은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완성한 '2030년 해운대 도시발전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마계발 지역으로 남아있는 석대지구 203만9000㎡를 '해운대 드림시티'로 개발하는 등 7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60대 전략사업을 담고 있다.





## 부산역광장 지하에 도심형 아쿠아리움 조성 부산의 재발견, 관광지 개발로 숨은 명소 제대로 알릴터

“세계적인 아쿠아리움 건립·운영업체인 마린스케이프(Marinescape) 측이 부산역광장 지하에 도심형 아쿠아리움을 짓는 사업제안서를 동구청에 제출해왔다.”

이 회사는 200억원을 들여 아리랑호텔 앞 부산역광장 지하 3천736㎡ 땅에 도심형 아쿠아리움을 짓겠다고 구청 측에 제안했다. 아쿠아리움에는 천장에 설치되는 튜브터널 형태의 90m짜리 대형 수족관과 전시수조 90개에 400종류, 4만 마리의 희귀 어류와 포유류 등이 전시된다.

회사 측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13년 아쿠아리

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쿠아리움은 2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부산 동구청과 마린스케이프 한국 법인인 (주)엠세스는 이날 구청에서 KTX 부산역 광장 지하를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조성하는 계기가 될 아쿠아리움을 유치하도록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세계 10여개국에 대형 아쿠아리움 23개를 지었다. 뉴질랜드 국립 아쿠아리움과 호주 메인리 아쿠아리움을 지어 운영중이고 지난해엔 북한 원산에 아쿠아리움을 건립하기도 했다.

## 부산역광장 예술시장 열린다

부산 동구청은 젊은 수공예 작가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행사를 8월부터 부산역광장에서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프리마켓이란 예술 작가들이 개인 공방에서 열린 공간으로 뛰쳐나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이를 전시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시장이다.

시민들은 거리아티스트의 공연을 즐기며 비즈공예, 폴리머 클레이, 리본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 작품을 접하고, 작

가와 직접 소통하는 공예 체험의 기회도 갖게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오감즐감공연, 분수쇼, 레이저쇼와 함께 프리마켓까지 다양한 문화콘텐츠 확충을 통해 부산역광장이 명실상부한 원도심 예술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프리마켓은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부산역광장 분수대 옆 특설 무대에서 열린다.

## 부산 문화기반시설 전국 평균미달

부산의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며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돼 ‘문화도시 부산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면 부산의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평균미달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공공 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현황이 실려 있다.

이 총람에 따르면 부산에는 인구 356만7910명에 총 66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 30개, 등록박물관 12개, 등록미술관 4개, 문예회관 7개, 지방문화원 13개다. 전국적으로는 총 1979개의 시설이 조사됐다.

이를 인구 100만 명당 시설 수로 살펴보면 부산의 상황이 한 눈에 들어온다. 부산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문화기반시설이 18.50개로 꼴찌다. 제주가 157.55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101.97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전국 평균은 39.18개다. 부산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공공도서관도 8,417개로 최하위다. 이 부문의 1위는 36,766개의 제주도이고 평균은 15,033개이다. 또 등록박물관 역시 3,367개로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1위 제주(89,287개)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전국 평균은 12,977개다.

부산 내에서도 문화기반시설이 해운대구(8개)와 금정구(8개), 남구(7개), 부산진구(6개) 등에 몰린 반면 연제구와 기장군, 강서구에는 각각 2개씩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국립극장,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남은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44.37개로 8위를 차지했으며 울산은 23.08개로 끝에서 3번째로 부산과 함께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문화시설 중 35.6%가 서울, 인천, 경기 등에 몰려 있어 문화시설 역시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 객원기자

## 부산관광사진전, 대상 '요트경기장' 당선작 9.2~5일까지 부산벡스코 국제관광전 기간 전시



올 부산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대상은 양서영 씨의 ‘요트경기장’이 차지했다. 부산광역시시는 지난 16일 ‘제12회 부산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부산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홍보 마케팅에 활용할 자료 발굴을 위한 이번 공모전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했다.

대상 사진은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내항을 바라본 모습을 웅장한 빌딩과 바다, 요트를 대비시켜 담아낸 작품. 색채감과 구



성이 뛰어나며 웅비하는 해양관광도시 부산을 훌륭하게 표현한 수작이라는 평가다. 시상식은 제14회 부산국제관광전(9월2~5일, 벡스코) 기간인 다음달 3일 벡스코 1층 행사장에서 갖는다. 당선작들은 부산국제관광전 기간 동안 전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며, 이후 국내·외 관광마케팅 자료로 적극 사용된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시지회 홈페이지(www.paskbs.com)를 통해서도 작품을 볼 수 있다.

## 택시 타고 ‘부산 밤’ 관광하세요 야경관광 시민체험투어

택시를 타고 부산의 야경 포인트를 한번에 둘러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이 선을 보인다. 부산관광컨벤션뷰로는 17~19일 부산시민 체험단과 함께하는 ‘택시 야경관광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의 야경관광을 적극 알리고 새로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것. 지역 대표 관광사들과 함께 부산의 여러 야경관광 포인트를 소개한다. 프로그램은 A·B·C·D의 네가지 코스로 투어 시간은 오후 7시 30분~10시 30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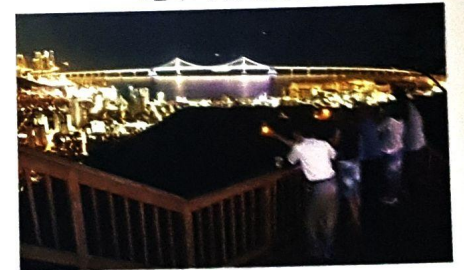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부산시민 450여명. 지난 12일까지 부산관광컨벤션뷰로 홈페이지(www.busancvb.org)를 통해 선착순으로 선발했다. 택시비와 제반 경비는 부산시가 부담하고 참가자들은 여행자보험과 기념사진 비용 5천원만 낸다.

택시 야경관광투어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여행과는 달리 택시를 이용해 가족, 친구 등 소규모 인원이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부산관광컨벤션뷰로 관계자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의 추세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관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투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투어의 문제점을 찾고 제반사항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택시 야경관광투어는 다음 달부터 지역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부산관광컨벤션뷰로(740-3622)





## 부산, '걷고 싶은 도시' 그린웨이 지도완성 해안·강변·숲길 등 574km 규모, 스토리텔링형 관광상품 역할 전망

부산의 해안길과 강변길, 숲속길을 모두 연결해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린웨이 지도'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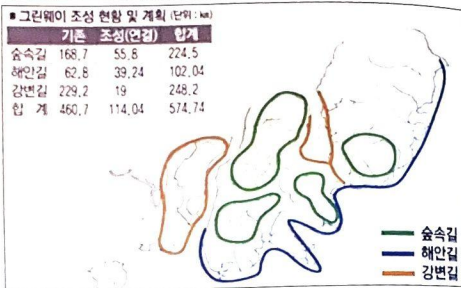
부산발전연구원은 '그린웨이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완성, 지난달 24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계획은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에 버금가는 부산만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 부산 그린웨이 구상도 부산은 이 계획에 따라 끊어진 해안·강변·숲속길을 이어 2012년까지 총 연장 574.7km에 달하는 '걷고 싶은 길(그린웨이)'을 만들 전망이다.

부산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조성한 길을 포함해 숲속길 168.7km, 강변길 229.2km, 해안길 62.8km 등 모두 460.7km의 그린웨이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들 길을 연결하는 숲속길 55.8km, 해안길 39.2km, 강변길 19km 등 114.04km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

해안길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길로 △기장~송정~청사포~등백섬~민락수변공원~광안리~남천항~이기대~백운포 코스 △제5부두~수미르공원~자갈치시장 코스 △영도대교~종리항~해양대~영도구청 코스 △여성물양장~송도~수산물도매시장 코스 △한진해운~다대포~물운대~울속도대교 코스 △명지평포장~신해대교~신호하수처리장 코스 △가덕도 선창~정항~두운항~천

성항~대항항~외양포~새바지~천가고 코스 등을 주축으로 조성된다. 특히 코스간 보행로 연결이 어려우면 '바다 버스(Sea Bus)'로 연결할 방침이다.

숲속길은 기장~해운대, 금정산, 상학산, 백양산, 영광산, 수정산, 승학산, 황령산, 금련산 등을 권역별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조성된다. 강변길은 온천천, 수영강, 춘천, 대천천 등의 하천길을 연결하고,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등의 제방길과 둔치길을 연결해 조성한다. 특히 강변길은 숲속길과 해안길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조성된다. 부산 그린웨이는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 반영한 스토리텔링형 관광상품으로도 역할을 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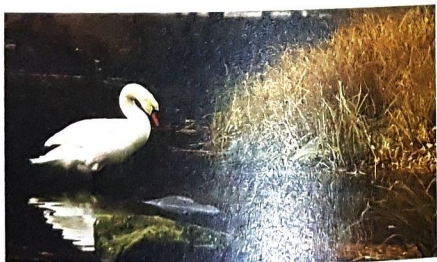


## 사하구 區상징물 '고니'(백조)로 변경 낙조분수에 조형물

부산 사하구가 區상징물을 고니로 변경하는 작업과 동시에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로 이어지는 진입로에 고니(백조)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을 세워 '고니도시 사하'의 이미지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 조형물에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영상이 변화하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아트 조명시설을 설치해 모래톱, 방어떼, 낙조, 물운대, 역사, 파도, 낙조분수, 고니 등 사하구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조명시설은 이달 말 시험가동을 거쳐 관광객들에게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설치한 고니 조형물은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규업 작가의 작품 花鳥風月(화조풍

월)로 높이 6m, 폭 3.2m의 마천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사하구의 대표적인 겨울철새 고니가 알을 지니고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 캐번동 르네시떼 ~ 강변삼락공원 잇는 강변 나들교 준공

### 사상 광장로가 명품문화거리로 국내 최장 268m 육교·프리포즈존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경전철 부산 중착역인 사상역부터 낙동강변으로 이어지는 '사상 광장로' 일대가 확 달라지고 있다.

이달 말 경전철 개통과 함께 캐번동 르네시떼 앞과 삼락강변공원을 잇는 연결육교인 '강변나들교'가 준공된다. 강변나들교에 특수조명도 설치됐다.

이 육교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10개월 만에 완공됐다. 길이는 국내 육교 가운데 가장 긴 268m에, 너비 2.5~4.5m로, 삼각형 모양의 구조가 이어지는 철근 와렌 트러스 형태로 만들어 졌다. 사상구는 현재 육교 가운데의 전당대에 가로 2m, 세로 0.5m의 LED 전광판과 하트 모양의 LED 패널, 프리포즈존 나무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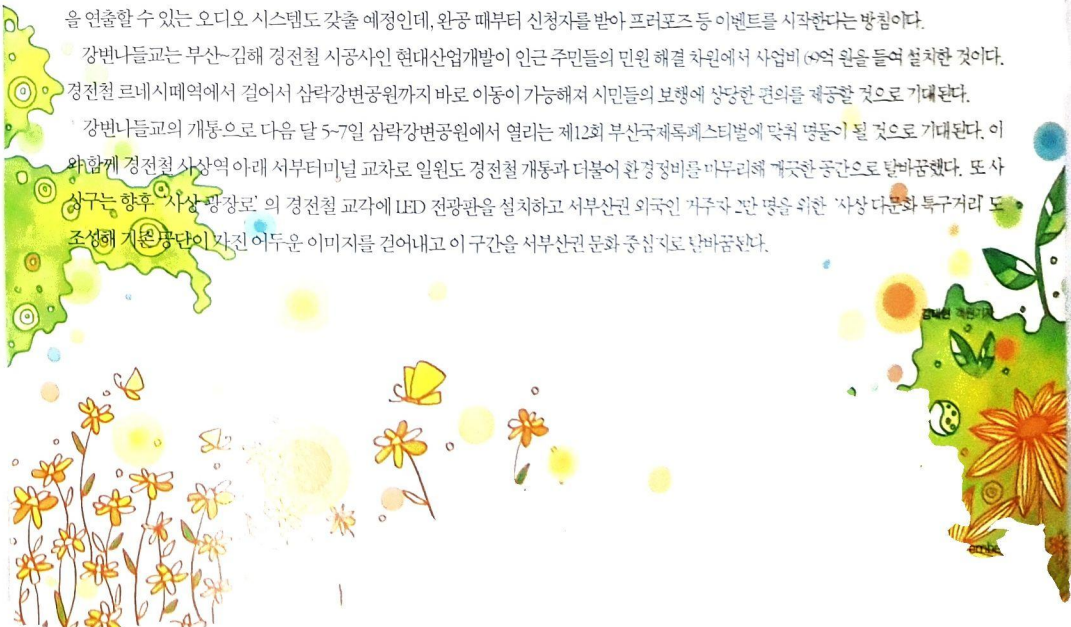


길이 268m로 국내에서 가장 긴 강변나들교

설치해 연인들이 낙동강을 바라보며 사랑고백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상구는 이벤트 성격에 맞게 배경음악을 연출할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도 갖출 예정인데, 완공 때부터 신청자를 받아 프리포즈 등 이벤트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강변나들교는 부산-김해 경전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설치한 것이다. 경전철 르네시떼역에서 걸어서 삼락강변공원까지 바로 이동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보행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변나들교의 개통으로 다음 달 5-7일 삼락강변공원에서 열리는 제12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 맞춰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와중에 경전철 사상역 아래 서부터미널 교차로 일원도 경전철 개통과 더불어 환경정비를 마무리해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사상구는 향후 '사상 광장로'의 경전철 교차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서부산권 외국인 거주자 2만 명을 위한 '사상 다문화 특구거리'도 조성해 '개방공간'이 가진 어두운 이미지를 걷어내고 이 구간을 서부산권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칼럼>

# 부산관광의 국제경쟁력 제고해야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급선무



**관**객들이 국내외의 관광지나 관광목적지를 선택할 때 가장 선호하는 요인 내지 선택기준은 관광재를 유인할 수 있는 관광지의 지명도,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관광시설, 그리고 쇼핑대상과 저렴한 가격조건 등이다. 여기서 관광지의 지명도나 관광자원은 오랜 세월동안 역사적으로 또 문화사적으로 객관적 평가와 함께 세계인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단기간에 관광지의 지명도와 선호도를 제고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접근성과 함께 체류의 편의성을 돕는 교통수단, 호텔 식당과 같은 관광시설이나 매력적인 쇼핑거리를 개발하고 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적정가격으로 제시하는 일은 관광행정당국의 의지와 관광사업자의 사명감이 합쳐지면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손쉬운 영역에 속한다.

흔히들 관광지의 관광 상품은 그것이 갖는 역사성과 전통 문화성, 고유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독과점가격이 용인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 고유의 역사유적이나 문화재는 제쳐두더라도 순수한 국산재료와 우리의 손기술로 만든 전통공예품과 민예품 그리고 인삼처럼 우리의 고장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에 관련한 독과점 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조공장에서 획일적으로 대량생산된 웬만한 일상용품이나 기념품, 호텔숙박과 식사, 교통요금 등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가격으로 인해 일방적인 고가가격 유지가 어렵게 되어있다.

다만 우리의 관광 상품과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 품질과 기능에서 우수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의 유명 관광지의 관광시설 사용료와 관광객 구매 일상용품에 대한 가격정보가 소상히 밝혀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관광 상품 내지 서비스 가격을 에너지 가격과 환율인상만의 이유로 고가가격을 유지한다면 이는 곧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국제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세계인들이 왔다투어 보고 싶어 하는 세계적 不可思議(불가사의)나 세계 유일의 걸출한 볼거리들을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인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는 아름다운 가족제도와 삼강오류사상, 단일 거례에 의한 5천년의 역사와 이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숭한 외적의 침략으로 남은 상처들과 민족상잔으로 말미암은 DMZ(휴전선), 부산의 유엔모지를 비롯해서 60-70년대 한강의 기적, 90년대 이후 IT강국을 일구어 낸 민족지력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거리 또한 반드시 보아야 할 (mustsee) 관광필수 대상은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가 타국이나 타 관광지에 비해 현저히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관광 상품을 갖지 못한 현실에서 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가격인하에 의한 상대적인 경쟁력의 회복이며 여기에 관광사업자와 종사자들의 확대생산과 예절을 제정화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관광상품 가격의 인하로 관광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는 국내의 사례를 제주도과 강원도 영월 '다하누촌' 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우리 부산도 이제는 한국제일의 해양관광도시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3포지향이니, 육해공로의 요충지니 하며 방향 없는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관광상품의 가격인하와 서비스향상에 의한 실질적인 외래객 유치증진을 위해 관련이 합심하여 관광 부산을 면모 일신해야 할 것이다.

손해식 본지편집위원 (hsdn40@hanmail.net)

희색빛으로 도배된 비정한 도심, 그 앞에서면 나는 늘 외로움을 느낀다.

## 여행

**여**행은 만남이다. 새로운 자연과 만나고 풍물과 역사와 미래를 만난다. 그리고 사람을 만난다. 그 만남의 순간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때때로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한다. 여행길에 사람을 만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가. 서로가 의미를 남기고 헤어지고, 그 작은 추억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때때로 한 줌 바람처럼 신선한 그리움이 남을 때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리라.

이래서 여행은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신비한 매력을 주고, 나를 설레이게 하고, 철없는 아이처럼 들뜨게 하며,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황홀하게 하는가보다. 여행길에서 만나는 양털처럼 부드러운 구름, 천란한 태양, 깊은 계곡의 풍화되지 않는 이끼 낀 바위, 이러한 경치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감동시킨다. 그리하여 먼 옛날 이오니아의 바닷길에서 함께 몸을 부비고 살던 신과 인간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한다. 그것은 문명의 상처를 입지 않는 곳, 그 대지, 그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다. 여행은 또 젊은 시절의 꿈도 되살려 준다. 때로는 스쳐갔던 기억을 일깨워서 천지를 만나는 것 같은 기쁨을 준다. 천지는 어디를 가나 새로운 배경 속에 있다. 희색빛으로 도배된 비정한 도심, 그 앞에서면 나는 늘 외로움을 느낀다.

해서 여행이란 바람 앞에 서서 즐거워하고 불멸의 문화유산 앞에서 황홀해 하는 것이며, 현대문명이 이룩한 엄청난 기적 앞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때 느낀 고독으로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며, 인생은 고독과 허무를 감내하면서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할 절대 명제인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원시의 그 바람이 나의 무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잃었던 순수를 찾아줄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나의 의자와는 무관하다. 어쩌면 자연의 순리처럼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내 걱정과 심려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여행은 나에게 즐거운 것을 즐거워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여행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순간들이 스치고 지나간 세월과 시간들을 반추케 한다. 새로이 맞이하고 다시금 헤어짐을 반복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에 주저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뒤돌아보게 한다.

사람마다 흐르는 시간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이 주어진 삶을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또 어떤 때는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에, 그 전부가 시간의 흐름속에서 서서히 변해가고, 그렇게 변해가는 시간속에서 멈추어 서버린 듯 주위의 소리를 품어버려 고요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여행은 일상과 삶에서 그 모든 순간들과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가끔 그 소중함을 얻기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곧잘 여행을 떠난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로운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김봉오 본지편집장 (bjbusan@hanmail.net)



# 부산 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BUSAN TOURISM

## 해운대·태종대 야경코스



### 광안대교

부산 제일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바다 위 보석처럼 빛나는 명품 브릿지 광안대교는 국내 최초의 해상 복층 현수교이다. 10만 개에 이르는 형형색색의 LED 조명 불빛이 만들어내는 빛의 파노라마는 1년 365일 날마다 새로운 추억과 낭만을 선사한다.

##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야영 체험과 도자기 체험,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산최대의 인공암벽장을 마련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부산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금련산 정상에 위치한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은 야경을 감상하기에도 안성맞춤인 동시에, 부산 유일의 천문대를 통해 밤하늘을 관측할 수도 있어 부산시민의 휴식 장소로 크게 사랑받고 있다.

## 달맞이길



봄이면 흐드러지게 만개한 핑크빛 벚꽃길이 펼쳐지고, 밤이면 달빛따라 걷는 해안 산책길 문탠로드가 이어지는 달맞이길! 정월 대보름, 이곳에 위치한 해월정에서 사랑을 약속하면 평생 사랑이 이루어 진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부산박물관



멀고 먼 선사시대부터 삼한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산 지역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살아 숨 쉬는 부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만나보자.

## UN기념공원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유엔군 장병들! 한 국전쟁 UN참전군 전사자의 넋이 잠들어 있는 UN기념공원 내에는 UN참전비와 각종 전사자들의 묘, 아름다운 조각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서부산의 절경과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을숙도 자연생태코스”

## 암남공원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암남공원! 이곳에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할 수 있는 해안산책로와 수심이 깊지 않아 낚시하기 좋은 낚시터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 다대포해수욕장



부산의 6대 해수욕장의 하나인 다대포해수욕장! 이 곳 갯벌에는 여러 가지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인기가 많다. 또한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에는 다대포 객사, 돌은대, 윤곡당 등 문화유적지가 많으며, 세계 최대의 바닷분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낙조분수는 관광객들의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

## 아미산전망대



백조 무리가 새하얀 목화송이처럼 점점이 갯벌에 앉아 있는 모습이나 도요새 떼가 허구 사자를 날아오르는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탐조 장소, 아미산 전망대! 그 밖에도 발아래 낙동강하구 모래섬으로 이루어진 삼각주 지형과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현상을 한눈에 관찰 할 수 있다.

## 을숙도에코센터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을숙도 철새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자연생태를 전시, 교육,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인 을숙도 에코센터! 그 밖에도 낙동강 하구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상영을 하고 있다.

이효영 기자(hy@busan21.com)







## 부산~대마도 항로 12년 독점 깨진다 미래고속, 운항면허 취득..10월 1일부터 쾌속선 운항

- 대아고속해운과 경쟁체제로

오는 10월 1일부터 부산~일본 쓰시마(對馬島)에 쾌속선이 운항될 전망이다. 부산과 후쿠오카를 오가는 쾌속선을 운항하는 미래고속(주)은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산~쓰시마 항로에 대한 운항면허를 취득한다고 최근 밝혔다. 미래고속 측은 오는 10월 1일부터 쾌속선 제트 포일(제트 엔진이 장착된 수중익선) 코비호와 비틀호(최고 속력 45노트)를 쓰시마 항로에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이에 따라 여객선사 (주)대아고속해운이 지난 1999년 7월부터 독점노선으로 운항하던 부산~쓰시마 항로가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됐다. 쓰시마를 찾는 국내 여행객들은 이 항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12년 동안 유지된 독점노선 체제 때보다 더 수준 높은 운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일 쓰시마 항로 정식 취항을 위해 운항 준비 작업에 들어간 미래고속은 특히 제트 포일 선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운항 소요시간을 기존 노선보다 1시간가량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여객선사는 부산~쓰시마 항로를 주중 1회 왕복, 주말 2회 왕복 이상 운항할 계획이다.

미래고속이 지난 2002년 2월 최초로 우리나라 국적의 제트 포

일을 부산~후쿠오카 항로에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 새 항로 개척에 나서면서 부산~쓰시마 항로의 경쟁 체제가 열렸다.

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28일부터 부산~쓰시마 항로 운항을 중단했던 대아고속해운은 6월 17일부터 주말(금, 토, 일요일) 노선에 한해 운항을 재개했다.

대아고속해운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씨플라워오II(최고 속력 30노트)와 드림플라워호(30노트)를 28일까지 매일 이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애초 오는 9월 30일까지 휴항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쓰시마를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재운항 일정을 앞당겼다



## 부산~울릉도간 200~300km로 바다위를 날아다니는배 (위그선·수면비행선)곧 운항 될 전망이다

부산지방해양항공청은 "최근 (주)한일고속이 낸 부산~울릉도 간 위그선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에 대해 이달 중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위그선은 비행기처럼 날개를 달고 물 위를 1~5m가량 떠서 달리는 선박을 말한다.

날개가 바다 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기가 선체를 떠받치는 양력(揚力)이 급증하는 반면 공기 저항은 작아지는 '해면(海面)효과'를 이용, 기존 초고속 선박보다 빠른 속력을 낸다. 공중을 날아 다니는 비행기지만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협약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된다.

부산해양청은 한일고속 면허신청에 "1년 내 선박 2척과 부산과 울릉도에 접안시설을 갖춘 것"이란 조건을 달아 승인해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8월쯤 위그선을 타고 부산과 울릉도를 오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고속 측은 낸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람 50명을 태울 수 있는 50t짜리 위그선 2척을 새로 지어 부산~울릉도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 척에 75억원 정도 하는 이 선박은 바다 수면에서 1~5m 정도 뜬 상태에서 평균 속력 시속 180km로 운항한다. 이 속력이면 부산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50분 만에 갈 수 있다. 하루 3차례 왕복 운항될 예정이다.



## 부산관광안내 지역번호(051) / Area Code (+82-51)

### Tourist Information



- 일반전화 이용시 (By Pay Phone) : 1330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1330 (예, 부산관광안내전화는 051+1330)
- By Cell Phone : Area Code+1330 (eg, Busan Tourist Information 051+1330)
- 24시간 통역 서비스 가능 : 24 hour Interpretation service available in <http://tour.busan.go.kr>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동구 초량동 / 463-3111	Busan Tourist Association / Choryang 1-dong, Dong-gu
김해국제공항관광안내소(국제) / 강서구 대저2동 / 973-4607	Gimhae Airport Tourist Information Center (Int'l) / Daejeo 2-dong, Gangseo-gu
김해국제공항관광안내소(국내) / 강서구 대저2동 / 973-2800	Gimhae Airport Tourist Information Center (Domestic) / Daejeo 2-dong, Gangseo-gu
국제여객터미널관광안내소 / 중구 중앙동 / 465-3471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Tourist Information Center / Jung-gang-dong, Jung-gu
부산역관광안내소 / 동구 초량3동 / 441-6565	Busan Station Tourist Information Center / Choryang 3-dong, Dong-gu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 동구 초량동 / 441-3121	Busan Information & Service Center for Foreigners / Choryang 1-dong, Dong-gu
해운대종합관광봉사센터 / 해운대구 중1동 / 749-5700	Haeundae Tourist Information Center / Jung 1-dong, Haeundae-gu
송정관광안내소 / 해운대구 송정동 / 749-5800	Songjeong Tourist Information Center / Songjeong-dong, Haeundae-gu
UN기념공원안내소 / 남구 대연4동 / 652-1608	UN Memorial Cemetery Tourist Information Center / Daeyeon 4-dong, Nam-gu
관광불편신고센터 / 연제구 연산5동 / 861-1101	Tourist Complaints Center / Yeonsan 5-dong, Yeonje-gu

## 부산교통안내 지역번호(051) / Area Code (+82-51)

### Important Transport-related Telephone Numbers

항공 Air	김해국제공항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a href="http://www.gimhae.airport.co.kr">www.gimhae.airport.co.kr</a>	972-3114
	대한항공 Korean Air	<a href="http://www.koreanair.com">www.koreanair.com</a>	1588-2001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a href="http://www.flyasiana.com">www.flyasiana.com</a>	1588-8000
선박 Ferry	국제여객터미널 International Ferry Terminal	<a href="http://www.busanferry.co.kr">www.busanferry.co.kr</a>	465-3471
	연안여객터미널 Coastal Ferry Terminal	<a href="http://www.seomticket.co.kr">www.seomticket.co.kr</a>	662-0117
철도 Train	KTX	<a href="http://www.ktx.korail.go.kr">www.ktx.korail.go.kr</a>	1544-7788
	철도 (부산역 Busan Station)	<a href="http://www.busanstation.co.kr">www.busanstation.co.kr</a>	1544-7788
시외버스 Inter-city Bus	부산고속버스터미널 Busan Express Bus Terminal	<a href="http://www.bxt.co.kr">www.bxt.co.kr</a>	1577-9956
	동부시외버스터미널 Dongbu Intercity Bus Terminal		1577-9967
	서부시외버스터미널 Intercity Bus Terminal		1577-8301
시내교통 City Transportation	렌터카(부산자동차대여사업조합) Rent-A-Car		505-4244
	택시(부산택시사업조합) Taxi		462-4651
	시내버스(부산시내버스사업조합) City Bus Office		635-5221







## 양산 법기수원지 79년만에 시민품으로... 풍광 뛰어나 관광객 몰려

이번에 전체 68만㎡ 달하는 수원지 부지 중 북부터 아래쪽 2만㎡ 정도가 개방됐다. 상수도본부 정선호 시설부장은 "시민 의식이 높아져 굳이 상수원 보호 명목으로 출입을 막을 필요성이 낮아졌고, 해당 지역의 풍광이 좋아 시민 건강 증진과 휴식을 위해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기수원지는 편백 1만 그루를 비롯해 소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히말라야시다, 호두나무, 벚꽃나무 등이 울창하다. 큰 것은 높이가 30m가 넘기도 한다.

이 나무들은 축조 당시 심은 것으로 수령이 80~100년 정도 됐다. 특히 특이한 반송 6그루는 국내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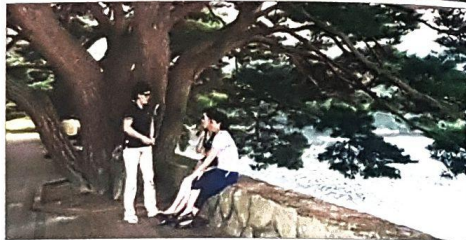
법기수원지를 관리하는 상수도본부 명장정수사업소 관계자는 "축조 당시 4~5년 된 반송을 심었다"며 "워낙 나무가 아름답다 보니 일부에서 탐을 내는데, 독 자체가 흙으로 쌓은 것이라 붕괴 위험이 있어 손을 못 댄다"고 한다.

150만 정도의 저수 능력을 갖춘 법기수원지에서는 하루 3천~4천 정도가 부산에 공급된다. 일종의 광역상수도이다. 부산 시민이 하루에 110만 정도를 쓰는 만큼 그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다. 개방에 앞서 상수도본부는 3억 원을 들여 개방하는 수원지 주변에 벤치 5개, 음수대 3곳, 화장실 1곳을 설치했다.

한편 법기수원지 주변의 산림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를 놓고 지난 17일 오후 2시 현장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사)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산림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관

계자 등이 참가했다.

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 측은 "법기수원지 숲은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만큼 2013년까지 매년 50ha씩 법기수원지 주변에 숲을 가꿀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Dynamic  
BUSAN**

**BITF 2011**  
Since 1966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Travel Fair

제14회 2011

**부산국제관광전**

2011 부산국제관광전

since 1995  
The 14th Busan International Travel Fair  
2011. 9. 2(금) ~ 5(월) / BEXCO  
www.bitf.co.kr



현대와 고전미를 고루 갖춘  
가족 외식 문화를 열어가는 숯불갈비 전문점  
깔끔하고 정감있는 분위기와 가족과의 단란한 한때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 2000년 7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깨끗한 음식점
- 2005년 APEC 지정 음식점 선정  
(부산광역시)

갈비의 내면의 정밀점  
**대궐안집**



부산광역시 사상구 꾀법동 559-11  
TEL: (051) 322-1223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관광협회**  
BUSAN TOURISM ASSOCIATION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주식회사 코트파  
KOTPA Co., Ltd.



**BEETLE** JR KYUSHU JET FERRY



부산에서 1시간10분, 보물섬「대마도」  
안전, 신속, 쾌적한 승선감

**비틀 「부산-대마도」 신규취항**

2011년 10월1일



**BEETLE**

JR 규슈고속선주식회사 부산지점 600-01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15-3번지 Tel.051-469-0778 Fax.051-469-0787